

경주시 감포지역 해안단구 지형발달

Geomorphic Development of Mt. Yeontae at Gampo area, Gyeongju City in the southeastern Korea

윤순옥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soyoon@khu.ac.kr)

황상일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Hayob@orgio.net)

한반도 동해안 지역은 해안단구가 모식적으로 분포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1973년에 김서운에 의해 처음으로 한반도에 해안단구가 보고되었으나, 오랫동안 해안단구는 구정선고도 약 90m a.s.l.에서 형성된 것이 가장 높은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 이상 고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황상일 외(2000)는 경주 감포에서 110, 120, 130, 150m의 지형면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고했으며, 강릉 정동진에서 윤순옥 외(2003)에 의해 고고위면이 110, 140m에서 확인되었다. 삼척, 오십천 해변변동단구에서도 윤순옥 외(2002)는 110, 150m의 고고위면을 확인하였고, 황상일 외(2003)는 울산과의 경계에 있는 지경리에서 115(고고위 II면), 140(고고위 I면), 155m(고고위 지경면) 지형면을 보고하였다. 최성길 외(2003)는 감포 남쪽의 읍천리에서 구정선고도 100m(읍천단구 IV면), 120m(읍천단구 III면), 140m(읍천단구 II면), 160m(읍천단구 I면)를 보고하면서 산지 정상부에 분포하는 160m면을 기준으로 하는 해안단구의 신분류시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경주시 감포읍의 연태산 정상부와 그의 북쪽 감포읍 서쪽 산지 일대에서 해안선과 같은 방향으로 큰 규모로 분포하는 해안단구를 확인하고 연태산 해안단구의 지형발달을 검토하였다. 이 지역에는 저위 I, II면, 중위면, 고위 I, II면 뿐 아니라 고고위면도 나타났으며, 기존에 보고된 고고위 지경면(구정선 고도 155m a.s.l.)보다 더 높은 해안단구면들이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해발고도 200m 이상의 연태산 정상부에 대규모의 해안단구면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까지 연태산 일대는 해발고도 250~200m의 저위평탄면 즉, 영동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윤순옥·황상일·정혜경 2000). 영동면은 고바야시(1931)에 의해 명명된 것으로, 그동안 이 지형면의 지형형성과정에 대해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려는 시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위평탄면에 대하여 하천에 의해 긴 시간동안 침식되어 형성된 침식면으로 설명되어 왔으며, 중부지방의 여주지역의 침식면과 같은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감포읍 연태산 일대의 해안단구는 이와 같은 영동면에 대한 기존의 설명체계에 새로운 논의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한반도 제4기 지반운동과 환경변화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